

천사의 음성

— 미국 캘리포니아 한국소년소녀합창단의 모국방문 연주를 듣고 —

나운영

8·15 해방 후 장수철·박재훈·안병원·손대업 등과 함께 우리나라 동요계를 이끌어 왔던 권길상 선생 인솔 하에 지휘자 김동현, 반주자 구자형 선생과 단원 37명으로 구성된 이 합창단의 연주회는 점점 시들어만 가는 듯한 우리나라 어린이 합창계에 커다란 자극을 던져 주었다고 생각된다.

창단 7년을 기념하는 이번 연주를 듣고 첫째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 마치 이태리 사람들처럼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좋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즉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외국어 발음이나 모국어 발음이 정확하여 조금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니 특히 이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일이다.

셋째로 선곡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일의 곡을 잘 소화해서 연주하였으니 무엇보다도 지휘자와 반주자의 탁월한 지도력과 높은 음악성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무릇 합창단이란 독창자의 집합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개성을 죽이고 한목소리로 연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성 3부 합창의 경우 여러 사람의 소리가 우선 세 사람의 소리로 집약돼야 하고 나중에는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져야 하는 것이 이상이니만치 발성·발음·리듬·음정·감정 표현 등이 일치돼야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법인데 이 합창단은 그 어려움을 드디어 극복한 셈이니 앞으로 저 <빈 소년합창단>이나 <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의 수준에 도전하는 국제적인 합창단으로 날로 날로 성장하기를 축원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공연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외국 노래의 경우 적어도 한 절쯤은 번역 가사로 노래했으면 좋겠고, 청중들에게 잘 알려진 노래를 더 많이 불렀으면 하는 점이다. 그래야만 더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반젤 소년소녀합창단>(김주영 지휘)의 우정 출연은 금상첨화란 말을 실감케 해 주어 매우 흐뭇했다.

<1989. 7.18>